



발간자료

• **조선 Weekly:** 신조선가: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185.64p로 보합, 포스트파나막스 컨선이 194백만달러로 1백만달러 하락. DC항 엔진: HD현대중공업이 미국 Corban Energy와 9.6MW급 힘센엔진 100여기·0.96조원 공급계약 체결, 4월 AEG(6,271억원) 이후 2번째로 누적 1.58조원. LNG 프로젝트: ExxonMobil 모잠비크 Rovuma(18.6MTPA) EPC사로 Saipem·McDermott·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2031년 가동 목표로 LNG선 20~30척 수요 발생. 수주 파이프라인: Argentina LNG가 투자 인센티브(RIGI) 신청, 4분기 FID 목표이며 FLNG 2기(12MTPA)는 2027년 삼성중공업 파이프라인. 경쟁/리스크: 대만 Wan Hai가 11,000-TEU 6척을 중국 외교교에 척당 118~124백만달러로 발주, 양밍의 13,000-TEU 6척 한화오션 발주는 공시 대기 중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의료기기 Monthly:** 2Q 대웅 나보타 통관 추정 오차 +0.5%로 높은 정합성 확인, 클래시드 실제 매출과 유사. 7월 대웅 특신 +92%, 파마리서치 +83%, 휴젤 필러 +47%, 클래시스 +47%로 강한 출발. 휴젤은 필러 통관 강세 반면 특신 -17%로 추정 하회 → 3Q 필러 상향·특신 하향 가능성. 7월 한 달 데이터인 만큼 방향성 중심 접근, 전반적인 3Q 수출 성장 모멘텀은 유효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화장품 Weekly:** 추적 바스켓 \$9.17M(WoW -0.6%)으로 보합, 상위 브랜드 중심 셀스루 확대. 메디큐브 \$4.30M(WoW +7.5%)으로 2위와 격차 확대, Amazon 미국 점유율도 18.0%로 회복. COSRX는 유기적 조회 비중 우수하나 절대 규모 제한적, 달바는 스페인 강세 속 미국 확산 여부가 관건. 메디큐브의 톱라인 지속성 확인되며 에이피알 중심 화장품 업종 선호 의견 유지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보험(Overweight):** 2Q26 실적도 대체로 컨센서스 상회. 계리가정 선진화 가이드라인 작용에 의한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던 영향 가능성. CSM은 성장보다 당분간 방어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 이에 보험업종 주가는 CSM 이상의 프리미엄 요인들이 부각; (1) 이익성장력, (2) 주주환원 모멘텀. 대기 중인 재료들 산적. 현실화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근거화 가능

(금융 김지원)

- 한화시스템/BUY/11.8만원:** 실적: 2Q26 매출 1조1,176억원(YoY+45.5%)·영업이익 1,037억원(YoY+210%)으로 호조, OPM 9.3%. 밸류에이션: 커버리지 재개, SOTP로 적정주가 11.8만원 제시 — 방산 자체가치(PER 30배) 7.8만원+한화오션 지분가치 1.28만원+한화필리조선(PSR 4배) 2.7만원+오스탈 지분가치 합산. 필리조선: 美 조선 진출 지렛대로 2029년 매출 2조원 목표, NSMV·SRIV·3,600 TEU 3척·탱커 4척 등 잔고 확보, NGLS·GFS 등 신규 파이프라인 다수. 건조 확대: 2035년까지 20척 건조 목표로 도크·안벽 증설 추진, 오스탈USA 인수 확정 시 적정가치 추가 상향 여력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리브스메드/BUY/9만원:** 2Q26 매출액 125억원(YoY +9.6%), 영업이익 -122억원(YoY 적자확대)으로 컨센서스 하회. 아티실 출시 지연·재고 폐기로 수익성 악화, 개선 제품은 4Q26 판매 예정. 미국은 STARK 기반 대형병원 플랫폼 영업으로 전략 전환, 국내 인허가 연말 목표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농심/BUY/55만원:** 2Q26P 연결 매출액 9,561억원, 영업이익 593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 상회. [별도] 라면 수출 고성장에 힘입어 YoY+6.4% 증가, [해외] 신제품 및 채널 확대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 지속. 광고비·포장재 원가 부담에도 환율 효과, 수출 믹스 개선, 해외법인 이익 기여 확대로 수익성 개선. 하반기는 국내 가격 인상, 해외 마케팅비 부담 완화가 이익 개선을 견인할 전망 (음식료/통신 이다연)
- 삼양식품/BUY/190만원:** 2Q26 매출 7,703억원, 영업이익 1,762억원으로 기대치 부합. 미국·유럽 법인 출고 확대 바탕 Mix 효과, 환 효과 바탕 원가율 개선. 반면 마케팅비·인건비는 증가. 기입점 채널 내 고성장 채널 유지 중, 유럽 성장도 고무적. 성장 추이 자체에 변화는 없음 . 다만 하반기는 생산량 증가폭 둔화, 각종 비용 증가로 수익성 개선 여력 제한적일 것 (음식료/통신 이다연)
- 세아제강/BUY/20만원:** 실적: 2Q26 매출 4,952억원(YoY+19.4%)·영업이익 349억원(YoY+275.1%)으로 컨센서스 상회 — 내수 판가 인상·저가원재료 효과, 수출수익성도 9%대 이익률. 3Q26 전망: 매출 4,713억원·영업이익 236억원(QoQ-32.4%) 예상 — 일시적 내수방어요인 소멸로 이익률은 낮아지나 수출은 high-single 유지. 밸류에이션: 판가 상승 반영해 적정주가 20만원으로 상향, BUY 유지. 모멘텀: 북미 rig count 회복·美 OCTG가 상승, 대만·UAE·오스트리아산 반덤핑에 따른 한국산 반사수혜, 중동 원유수송 다변화 투자 시 라인파이프 수혜 가능성 (철강/비철금속 이정우)

- **기가비스/BUY/23만원:** 2Q26 매출액 223억원(+151%, 이하 YoY), 영업이익 66억원(+225%), OPM 29.6% 기록. 전분기 실적 저점 이후 QoQ 계단식 성장의 첫 분기 확인. 하반기부터 수주잔고 확대 본격화. 1Q27 매출이 25년 연간 매출(523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AOR·고사양 장비 중심 Mix 개선 순항. 검사장비(AOI) 대비 수리장비(AOR) 비중이 과거 7:3~6:4에서 최근 5:5수준까지 상승. 연초부터 협력업체에 소재·부품을 선요청했으며 인력 수급도 원활. 주력 장비 사양이 직전 사이클과 유사해 생산 확대 대응에도 무리 없는 상황. 27년 매출액 2,325억원, 영업이익 1,049억원 전망. 적정주가 23만원 유지하며 27E EPS 6,616원에 적정 P/E 35배 적용

(전기전자 김연미)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